

# ESG Wannabe

SK증권 자산전략팀

Strategist 이효석 CFA (3773-9956)



## 너무 추운데, 그냥 다시 석탄 땔까요?

### ● 최근 ESG 도 좋지만, 얼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상황

- 에너지 가격 급등. 그런데 ESG 때문에 석탄발전은 안 됨. 바람은 약해져서 풍력발전도 안되는데, 춥다.
- 최근 ECB의 스트레스 테스트(ECB economy-wide climate stress test)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음
- 세가지 시나리오는 1)질서 있는 전환, 2)무질서한 전환, 3)전환 없이 맞는 뜨거운 지구
-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ECB는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(전환 비용, Transition risk)과 가만히 앉아서 기후위기를 당하는 비용(물리적 비용, Physical risk)중 어떤 것이 큰지 비교
- 결론 “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도 크겠지만, 물리적비용보다는 작다는 것”
- 오늘 제시할 중요한 포인트는 전환 시나리오별 에너지 가격에 대한 경로 예측인데, 탈탄소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예외 없이 최소 2025년까지 에너지 가격이 평균적으로 10% 이상 상승을 예상함
-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, 최근 나타나고 있는 그린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
- 작년 코로나19 위기 이후, ‘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전기차냐’ 했던 것처럼 올 겨울에도 ‘추워 죽겠는데, 무슨 ESG냐’라는 이야기가 나올 듯. 하지만, 결론은 “에너지 가격 상승해도 탈탄소는 가야함”이 될 전망

물리적(Physical) & 전환(Transition) 위험 레벨에 따른 시나리오

전환 시나리오별 에너지 가격(Price) 경로 예측

